



특권경쟁교육 완전 폐기를 위한 농성 돌입



교육운동연대 주관으로 6월 2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권·경쟁교육 완전 폐기 144시간 철야농성'을 했다. 이번 농성은 첫째, 국제중·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둘째, 영훈중·대원중에 대한 국제중학교 지정 즉각 취소, 셋째, 일제고사 완전 폐지, 넷째, 학교성과급 폐지와 시도교육청 평가 중단 등을 요구하는 농성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특권교육 폐지를 목표로 한 다방면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교육운동연대, 교육비상원탁회의 출범



지난 5월 29일 흥사단 강당에서 우리 회를 비롯한 전교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23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운동연대'가 창립되었다. '교육운동연대'는 경쟁과 차별 없는 교육실현을 목표로 교육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운동연대 사업으로 6월 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민사회·학계·학부모단체 등이 모여 '교육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비상원탁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비상원탁회의는 교육단체를 넘어

종교·학술·노동·환경·여성 등 넓은 영역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자율형사립고, 국제중학교 등 특권경쟁교육, 학교폭력, 혁신학교 등 주제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교육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원탁회의에는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강내희(중앙대), 강남훈(한신대), 조희연(민교협 상임의장), 홍세화(학벌없는사회 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 사회원로들이 참여한다. 김상곤(경기도교육감), 김승환(전북도교육감), 민병희(강원도교육감), 장휘국(광주시교육감) 등 4개 시·도 교육감은 자문위원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지회 창립을 축하해주세요



2013년 장미의 계절 6월 8일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서부지회가 창립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늘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지회가 되겠습니다!!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44

{ <편집자 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사회는 무엇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오연호 기자의 허락을 받아,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결②, 발뷰 공립초등학교 교장 인터뷰 기사를 요약해 실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로 인권을 푸는 흥덕고등학교 학생의 생생한 이야기도 아울러 실습니다. }

초등학생도 학교이사회의 정식 멤버인 나라



1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근처의 광장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거리공연을 보며 주말을 즐기고 있다
2 덴마크의 아이들은 골고루 사랑을 받고, 평등한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3 교사경력 16년, 교장경력 18년의 여성교장 마르그레테(62)씨
4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발뷰 공립초등학교, 0학년(학습준비학년)부터 9학년(우리의 중학과정 포함)까지 6백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공부를 못한 학생도 칭찬을 받습니다. 산만한 학생도 칭찬을 받습니다. 왕따요? 학교폭력 이요? 전혀 없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발뷰 공립초등학교는 0학년(학습준비학년)부터 9학년(우리의 중학과정 포함)까지 6백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 학교는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것으로 매우 소박했다. 운동장도 없고 이렇다 할 조경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경력 16년, 교장경력 18년인 여성교장 마르그레테(62)씨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 이 학교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다.

3~9년간 같은 담임, “교사는 부모”

6년 내내 같은 반에 같은 담임선생님이라면? 중학교 3년까지도 그것이 이어진다면? 우리에게게는 상상이 잘 안 되는 ‘9년 내내 같은 학생, 같은 담임’이 덴마크의 오랜 전통이다. 만약 어떤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르그레테 교장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한다.

“그런 경우는 부모와 학생이 담임선생님과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대개 이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는데, 정 안되면 다른 반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전교생 중 1년에 1명 정도만 담임선생님 교체를 원한다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은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담임선생님이 학생,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해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는 거예요. 학생의 특이한 취향은 물론 가정환경까지요. 그걸 바탕으로 아이를 위한 학습방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등수가 없다, 왕따가 없다

이 학교는 7학년까지 시험이 없다. 점수를 매기는 시험은 8학년에 가서야 있는데 등수는 매기지 않는다. 졸업시험 때도 등수가 없다. 단지 학생들의 진로를 조언하는데 참고만 한다.

“덴마크 교육방법은 아이들끼리 경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로 점수를 아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우거나 특별히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쟁은 일어나지 않지요.”

교장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도록 개별적으로 칭찬하고, 못하는 애들도 칭찬한다.’고 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칭찬해줄까?

“만약 어떤 아이가 20개의 문제 중에 절반밖에 못 맞추면 다음에는 1개만 더 맞춰도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줘서 학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산만한 학생도 칭찬받을 기회를 준다

“어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짧은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는 목표를 정해줘요. 10분만 한 번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 10분 동안 잘 앉아 있으면 아주 많은 칭찬을 해줘요.”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참기 힘든 아이도 있을 터인데?

“그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의 교육은 학생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들을 다 포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는 용서해주고 대신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를 탓한다? 그 탓은 다름 아닌 대화였다.

“부모와 자주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힘을 합쳐 고쳐보자고. 만약 부모가 협력할 형편이 아니면 학교가 더욱 그 아이에게 신경을 씁니다. 학교에서도 챙겨주지 않으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일수록 학교가 오고 싶은, 집에서는 불안했더라도 학교에 오면 마음이 놓이는 곳이 되어야지요.”

덴마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제히 선생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풍경은 보기 힘들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문란하게 보일 정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는데 사실일까?

“그건 아닙니다(웃음). 여기에서도 완전히 마음대로 하지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용히 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애들을 처벌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보통 조용히 하라고 하면 말을 듣는데, 소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것까지 포용해야지요.”

반장 없이 평등문화 속에서 자란다

“반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든지 평등하게 하기 때문에 반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 반 아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학생회에 파견 나가는 아이는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반을 이끌어간다든지, 내가 대장이라든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 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이른바 왕따 문제도 없는 것일까?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

해서 교육시키는 게 ‘어떻게 함께 잘 놀 것인가’입니다. 한두 번 소외당하고 왕따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놀다 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을 수 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같은 정도로 다 사랑할 수는 없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교육도 합니다.”

교장은 “그런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왕따 등 학생들 간의 문제로 자살한다거나 폭력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주는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폭력도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위하는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지요.”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게 도와준다

아이들은 이렇게 골고루 사랑을 받고 평등한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간다.

“7학년부터는 진로담당 선생님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충분히 점검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직업학교로 갈 것인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것인지를 정하지요. 진로결정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합니다. 학교나 선생님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단지 그 학생의 선택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와줄 뿐이죠.”

덴마크에는 10학년제라는 독특한 과정이 있다.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학년이라고 할까?

“학생을 상담할 때는 학습수준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도 점검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바로 고등학교로 가도록 지도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10학년 과정을 거치도록 추천합니다. 10학년의 목표는 학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학생도 학교이사회에 정식 멤버로 참여

“학생회는 각 반에서 1명씩 파견해서 구성되는데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참여 훈련을 하는 거지요. 최근에는 학생회가 제안해서 학생들

의자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했어요. 학생회에서 학교행정의 최고 결정기관인 학교이사회에 두 명의 학생대표를 파견합니다. 누구를 파견할지는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지요.”

이 공립학교의 이사회는 모두 11명인데 학부모가 7명, 교직원 2명, 학생 2명이다. 이사회를 통해 교장의 교육 방안을 승인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가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한 것도 이채롭지만 학생이 이사회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선생님의 애정을 골고루 나눠주는 학교, 학생 개개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학교,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학교, 주인의식과 평등의식을 갖게 하는 학교. 덴마크 곳곳에서 이런 학교들이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를 만드는 덴마크 시민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이 학교의 다른 이름은 행복초등학교였다.

기사출처 -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1171

참여와 소통을 통한 배움 공동체를 실현 중인 흥덕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년 반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교와는 다른 수업방식과 생활방식을 많이 경험했다.

첫째는 교과교실제이다. 우리 학교는 전 과목 교과교실제를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직접 수업하는 교실을 찾아간다.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했지만 교과 특성에 맞게 교실을 꾸며주신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함께 직접 보고,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수업을 하게 되었고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는 모듈(토론)수업이다. 대부분의 수업을 모듈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받는 수업이 아닌 하는 수업을 하게 된다.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직접 고민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힘을 기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처음에는 우리들끼리 문제의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어려웠고, 내가 모르는 것을 친구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다. 그렇지만 계속 모듈수업을 하다 보니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졌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직접 계획하

는 통합기행, 농촌봉사활동, 국토순례 프로그램이다. 나는 작년에 국토순례를, 올해는 통합기행을 갔다 왔다.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을 가는 장소, 가서 할 일, 예산 등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직접 정하려고 하니 조금은 두려웠고 걱정도 많이 됐다. 하지만 친구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성취감뿐만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적절한 절충안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학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혁신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끼리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학교는 학교생활에 대한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이미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고, 억누르지 않는 분위기에서 지킬 건 지키도록 만든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여러 가지 규칙들로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은 편해지고, 동아리활동이나 학생회활동 등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한다.

그래서인지 우리학교는 학교폭력이 적다. 학교생활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는 것과 또래중조 프로그램이나 활성화되어 있는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학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정연희 (흥덕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활동 시리즈 ④ - 동북부지회 <와글와글 놀이터>

놀며 다투며 성장하는 아이들

9년 전 동북부지회 놀이소모임 '어라디야'가 생겼다. 놀이를 나누고픈 마음에 지역의 이 곳 저곳에서 놀기 시작, 놀이를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2012년 중계동 한 곳에서 출발한 와글와글 놀이터는 4곳 놀이터로 늘어나고, 올해 유현, 상원, 쌍문초 세 학교의 마음밥 놀이터, 면목, 중계 2곳 지역으로 늘어났다. 2012, 2013년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지원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 열리는 '마음밥 놀이터'는 학부모 회를 통해, 학부모 동아리를 통해 여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주저했지만 일단 시작한 곳은 모두 교사

나 아이들, 학부모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다.

놀이가 깊어지면서 어려움도 생겼다. '아이들 간의 갈등, 이모(놀이진행자)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 지난 6월, 이를 함께 풀어보고자 세 곳 학교와 두 곳 놀이터 이모들이, 4회에 걸쳐 '갈등 조정 워크숍 - 놀며 다투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열었다. 다른 학교 학부모와 '놀이터 이모'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 즐거운 자리였고 자연스런 연합 서클의 시작이기도 했다. 상원초에서는 놀이와 갈등 중재라는 주제에 170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여했다. 열 명이 놀이터 이모를 신청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

다.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40여 명의 학부모가 같이했다.

다음은 워크숍을 마친 후기 중 일부다.

'놀이가 이끄는 곳에 이렇듯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니! 워크숍을 마치고 나니 놀이터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펼치는 마법 같은 장소, 하나하나 자신만의 빛을 뽐어내는 아이들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빛들! 놀이터 이모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세상에 함께 하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와글와글 놀이터 부모모임은 카페(<http://cafe.daum.net/noli123>)에 교장선생님께 보낸 제안서와 마음밥 통신, 놀이 자료, 사진 등을 모아놓았다. 아이들이 맘껏 뛰노는 놀이터가 전국 학교에, 지역에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북부지회 와글와글 놀이터 부모모임



와글와글 놀이터 일기

유현초 - 마음밥 어머니회와 함께 매일매일 신나는 놀이터

오늘도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몰려옵니다. 오늘은 난자고 이모와 진달래 이모가 오셨어요. 아이들은 모래놀이터에서, 도서관 앞 작은 마당에서, 학교 곳곳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정우는 두 시간 내내 공벌레를 찾아다니고요, 그림을 좋아하는 다은이는 여기저기 바닥에 흩뿌려 그림을 그립니다. 싸움을 즐겨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오늘은 단오가 며칠 앞이라 장명루를 만들었어요. 5분을 못 앉아있는 친구들이 30분 넘게 앉아 장명루를 만듭니다. 이름표 삼아 만들었는데, 오래 산다는 말에 엄마랑 아빠 것도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면목동 - 아이도 엄마도 까르르 웃는 신기한 놀이터

줄넘기만 넘을 뿐인데 매번 아이들이 까르르 웃네요. 여섯 살도 웃고, 아홉 살도 웃고, 열두 살도 웃고, 마흔 두 살 엄마도 웃습니다. 참 신기한 놀이터입니다. 마법 같은 놀이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까치공원, 목요일 오후 사가정 공원 용마 한신 아파트 바로 옆 미니운동장에서 진행합니다. 아무나 오셔서 놀면 됩니다. 놀이도구는 토토, 아이꽃이 준비합니다. 놀이의 아이디어와 도구의 신이 계시다면 맘껏 알려주세요. 놀이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중계동 - 똑같은 놀이라도 날마다 재밌어

중계공룡공원에서 놀이터가 열립니다. 매주 월·수·금 4시 30분쯤 시작합니다. 원암 유치원아이들이 이제는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멀리 사는 유치원 엄마들도 소문 듣고 와서 계속 놀러 와도 되냐고 묻기도 하네요. 작년에 놀았던 단골손님- 용동초 여자 친구들도 찾아옵니다. 마무리는 '우리 집에 왜 왔니?'로 마칩니다. 단순한 놀이인데도 매번 흥분하는 아이들이 더 신기합니다.

쌍문초 - 날씨 좋고 어쭙! 그림자도 생기는 날!

마음밥 어머니들이 주로 줄을 잡았는데, 이제는 저희들끼리 돌리고 논다. 고무줄 놀이, 런닝맨 놀이, 그림자 밟기 놀이...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고, 함께하는 모습에 흥분하신 어머니 한 분이 아이스크림으로 한 턱 내셨다.

교장선생님 교무주임선생님 학부모대표님께서 가끔 나오셔서 노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신다. 오늘 쌍문초 마음밥 어머니들은 사회적 부모에 합류했다! 38명의 아이들과 15명의 마음밥 어머니회.

상원초- 하늘마당 놀이터

"엄마도 이렇게 놀았어!"

하늘마당은 상계동 주공12단지 아파트 '햇빛놀이터'에서 수요일, 금요일 2시에 열린다. 이 놀이터는 길목이다 보니 오가다가 구경도 하고, 함께 놀이에 끼기도 한다. 덕분에 시간이 가면서 놀이터가 조금씩 풍성해져

간다. 처음에는 놀이가 긴 줄넘기, 팔자놀이, 구슬치기 정도였다. "나 어렸을 때 땅따먹기 하느라 해지는 줄 몰랐는데!" 그 엄마는 놀이터 아이들한테 땅따먹기를 가르쳐 줬다. 어떤 엄마는 집에서 자주한다는 '왕놀이'란 가위바위보 놀이도 알려줬다. 아빠도 동참했다. 구슬로 노는 방법도 구슬치기만 있는 게 아니고 '홀짝'이 있고, '일이삼'이 있단다. 아이들은 신기해한다. 만날 잔소리만 하던 엄마가 동심에 젖어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아이 마음이 확 열리는 게 보인다.

놀이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툼을 중재하는 일이다. 아이들은 별일도 아닌 걸로 싸운다. 처음 오거나 놀이터에 온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싸움이 더 잦다. '그런데 왜 싸울까?'

대개 졌다고 화내고, 안된다고 짜증내고, 죽었다고 뺨치고, 안 죽었다고 우기고, 이기겠다고 규칙을 어기는 경우이다. 그런데 놀다보면 졌다가 이기고, 안됐다가 되고, 죽었다 산다는 것을 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미숙함과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해지고 단단해지는 마음이 생긴다.

놀이터는 모든 감정이 열리는 해방구이다. 대개 엄마들은 놀이터에서 흠뻑 놀고 '즐거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행복감만 주려는 것은 온실 속 화초 키우듯 양분, 햇빛, 물만 주어 키운다는 뜻이다. 슬픔, 화, 미움, 질투, 좌절도 잘 다독이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상대방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이해는 배려의 밑거름이 된다. 놀이터에서 아이들도 커가고 이모도 커가는 이 모든 과정은 2013년 6월 현재 진행형이다.

I 덴마크 자유중등학교와 한국의 자유학기제

덴마크 자유중등학교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덴마크 땅을 밟은 지도 어언 십여 년이 되어 온다. 인간의 체취가 느껴지는 학교들을 찾아보아야 겠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보다가 마침내 가게 된 곳이다. 탐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덴마크는 인구 오백여 만 명의 작다면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였다. 동화작가 안데르센과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어로, 이름으로는 그리 낯설지 않은 나라라 생각했던 이 나라는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감흥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다.

현재 덴마크가 보여주는 교육의 면면들은 1980년대 초엽에서 중반 사이 공교육의 모순을 지적하며 새로운 학교를 요청했던 니콜라이 그룬트비(Nikolaj Grundtvig)와 그의 동역자였던 크리스텐 콜(Christen Kold)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당시 교육이 체제를 유지하는 정도나 엘리트 양성을 위주로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 좀 더 정확하게는 서민과 농민들이 중심에 서서 ‘자유롭고 참여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그 패러다임을 새로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교육의 목적설정과 교육과정 구성, 교수-학습 면 등 일체를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는 학교 체제가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적대적이며 비인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한 전반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 문제의식의 결과가 바로 이 나라에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다양한 자유학교들이다.

오늘날 덴마크 공교육은 예전의 고답적 형태가 아니라 이 자유학교의 성과를 받아들여 풍부하게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북유럽 교육의 인상적인 면모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영향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

자유학교 1~2년, 공교육제도와 병렬구조

자유학교에는 초등, 중등, 고등 단계에 걸쳐 셋이 있는데, 한결같이 인상적이나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개성과 진로를 촉진하는 교육 구조의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중등단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단계를 대표하는 학교 유형은 자유중등학교인 ‘에프터스콜레(Efterskole)’이다.

보통 14~18세 연령층의 8~10학년 청소년을 위한 학교(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로서, 공교육제도에 병렬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음악, 체육, 수공예, 자연 및 생태 등 특별한 영역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학교생활에 싫증을 내거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1~2년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학교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립학교를 다니는 대신 1~2년간의 재학 기간을 선택하여 다닐 수 있다.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공립학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 학생 수는 적게는 30명, 많게는 500명 정도이며 평균 105명이다.

-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을 제공한다. 기초적 과제를 다루며 개인의 전체적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 공립학교 교육과정과 아주 다른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한다. 모든 학교들이 같은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목 선택과 교수법을 학교 스스로 정한다. 그 내용과 방식은 학교가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그룬트비-콜 식의 학교는 일반교육과 계몽이라는 노선을 견지하되, 폭넓게 창조적 교과를 운영한다. 체육에 초점을 맞춘 자유중등학교는 신체 교육을 강조하는 한다. 또 다른 학교는 교실 수업보다는 다양한 워크숍과 현장 연구에 치중한다. 어떤 학교는 몇 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한다. 여기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기간을 정해서 공부할 주제를 모두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자유중등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종합 졸업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학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주 유연하게 학기를 운영해야 한다.

자유중등학교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260여개교가 있으며, 매년 28,500여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다.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더욱 증가 추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영재 아동이나 학습 부진아를 위한 특별한 목적 하에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학습부진아를 위한 학교는 정규 학교에서 독서 장애, 학습 부진, 지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학교들은 이론적 학습과 동시에 실제 생활에 관련된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중에는 현장에 바탕을 둔 최신 과학이나, 혹은 완전학습 법이나 다중지능이론 등을 사용하여 탁월한 성공을 거둔 학교들도 있다. 학습 부진아를 위한 학교도 14%정도를 차지한다. 1980년대와 2000년대에는 체육, 음악, 연극, 자연 및 생태에 초점을 맞춘 학교들이 증가했다. 이들 학교는 모두 창조적이고 자기 성취적 방향에서 인격 발달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보통의 전통적 학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15% 정도). 나머지 13% 정도는 유형화시키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새롭고 색다른 학교 분위기를

를 맛보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선택하여 다닌다. 또한 가지 시선을 끄는 것은 이곳에서는 침대들과 부모들이 겪는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유중등학교에서 일 년을 보낸 후 지적 지평이 더 넓어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사회적 경험과 지적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보다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는 점, 앞으로 이어질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배우고 준비하는 일에 좀 더 긍정적인 태도와 열의를 갖게 된다고 한다.

자유중등학교,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과정운영 해마다 학생수 증가추세

우리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성(진로 개척을 위한), 자유, 민주시민의 셋 정도가 아닌가 싶다.

첫째, ‘개성’은 종래의 획일적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정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대화적 구조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둘째, ‘자유’는 권위와 통제적 학교문화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다. 우리의 학교가 가지는 모순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도 교무와 행정 전반에 걸쳐 권위와 통제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셋째로 사회공동체적 책임의식은 소위 선진 국가들의 국제 표준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임에도 현재의 경쟁체제와 비민주적-관료주의적 학교 문화 때문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 정부가 말하는 ‘꿈과 끼’를 살리는 정도의 개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지향점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학기제’는 그 현실 적합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토의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제도임은 물론, 그것이 여기서 소개한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개성과 자유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적 시각을 어느 정도 담보해 낼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일이다.

송순재 (우리회 자문위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마을에서 산촌유학을 한다는 것



산촌유학? 산촌유학!

산촌유학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산촌유학은 산촌으로 가는 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일부에서는 농어촌유학이라고도 합니다. 대략 90%정도가 산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과 몇 가지 차이점을 정리하면, (1) 우리나라의 산촌으로 가서, 월 1~2회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2) 산촌의 학교를 다니므로 우리말로 배우고, 한반에 10명 내외로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과도 잘 지내게 됩니다. (3) 마을 분들이 생활을 도와줍니다.

외국어 공부나 외국인 친구도 못 사귀고, 좀 더 혁신적인 성장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자연이라는 큰 선생님과 시골학교의 다양한 활동 및 취미 프로그램은 도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산촌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시골마을에 살면서 시골 학교에 다니는 장기 체험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즉 자연에서의 삶과 배움, 부모와 거리두기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과 자연, 그리고 주민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마을에서의 삶에서 아이들을 품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산촌유학 = 돌봄 + 배움

산촌유학을 통해 아이들의 환경감수성과 사회성과 아이들 내면의 성장을 키우면서, 지역 아이들과 시골 학교가 활기차게 살아나 마을의 교육이 정상화됩니다. 교육은 경쟁과 협력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초기에 과도한 경쟁심과 이기심을 보여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내면의 힘을 키우면서 친구, 형제가 되어갑니다.

교육 = 경쟁 + 협력

마을의 학교가 활기차지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더군요. 마을일이 많아져 함께하는 즐거운 일이 생기고 아이를 따라 어른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생겨서 젊은이들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산촌유학 = 마을활성화의 선순환 고리

여러 산촌유학이 있다면

35여 년 전 일본에서 시작된 산촌유학을 2006년에 '민들레'와 '(사)생태산촌'이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산촌유학을 시작한
소다테루카이 아오키 고안
(青木孝安) 이사장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량의 몸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엔진, 그리고 휘발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간에 비유해 보면 자동차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간의 몸,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간의 머리가 된다. 그런데 휘발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간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동차의 경우 아무리 튼튼한 차체와 뛰어난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휘발유 없이는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차라고 해도 달려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인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확고하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매우 좋아도, 어

떻게든 하려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뼈와 고기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 휘발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내부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잘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 진행해서 가려는 힘, 이런 것들이 휘발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기라는 힘, 생명력, 생활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살려고 하는 힘'입니다. 눈과 얼굴이 빛나고 생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이야말로 휘발유가 불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도시도 시골도) 엔진에 해당하는 머리를 닦는 것에만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과 학원에서 그렇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에서도 수영교실이나 소년 축구, 야구 같은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몸의 일부를 단련하는 것만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을 그저 엔진을 잘 관리하는 것, 즉 머리를 닦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이 매우 걱정입니다. 확실히 엔진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수험이라는 레이스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휘발유가 없으면 차는 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봅시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최근에는 특히 머리 손질에만 불과한 일, 지긋지긋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가 많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진행되지 않아 내키지 않아하는 아이',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지, 생명력, 도전하는 힘, 살아가는 힘'이라는 빨갛게 불타는 연료를 주는 것이 소다테루카이의 활동입니다. '무엇을 할까요?'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어린이 상을 그리면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이 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연료를 실으실 건가요? 도전해 보시죠!

지속가능한 산촌유학 = 마을공동체형

이렇게 시작한 산촌유학은 2013년 현재 전국의 30여 개 현장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 농가에서 2~3명의 아이들과 있는 곳이 있고, 많게는 센터나 마을이 20~40여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략 40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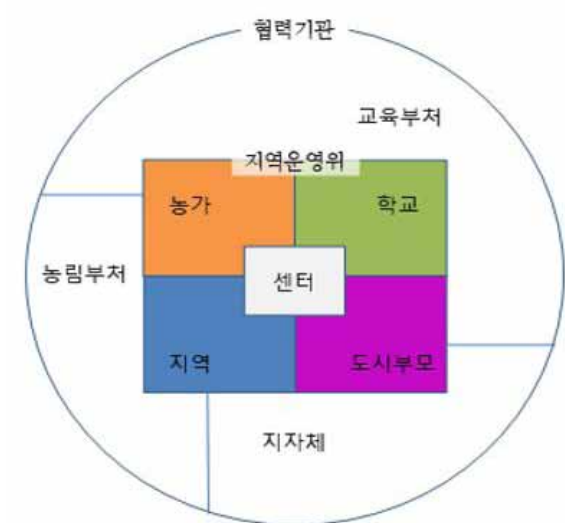
농가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장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품는 힘이 좋고, 센터가 중심이 되는 현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장단점이 있어 아이와 부모에게 잘 맞는 현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속가능한 산촌유학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농가형과 센터형이 함께 결합된 마을공동체형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마을의 역동성과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를 바탕

으로 산촌유학이 뿌리내리기에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산촌유학협의회 사무총장인 야마모토 씨도 이런 점에 대해 많은 부러움을 나타냅니다. 일본은 30여년에 걸쳐 배운 ‘활동가가 마을 주민을 키워,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품어낸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몇 현장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2012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방향과 성장에 있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 분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산촌유학은 무엇입니까

산촌유학은 왜 필요할까? 산촌유학의 우리 사회에서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주기적으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의 답은 ‘마을’과 ‘교육’,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입니다.



산촌유학 = 마을 + 교육

산촌유학이 나무라면 뿌리와 땅은 마을과 자연이 됩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관계와 정, 마을 학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마을공동체형 센터의 경우 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 산촌유학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즐기에 해당합니다. 산촌유학은 유학 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도 함께 지지해주고 키워주는 축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부딪치면서 경쟁과 협력, 그리고 형제, 자매, 친구라는 기본적인 관계를 배우는 공간이 됩니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잎, 꽃, 열매입니다. 자연히 산촌유학 아이들은 마을 아이입니다.

튼튼한 뿌리와 건강한 땅이 즐거울 튼튼히 키우고 아름다운 잎과 꽃,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 행복하면 아이들도 더 행복해 질 것입니다.

산촌유학은 마을 앞 정자나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쉬어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을 지나던 이들에게도 자리를 내어주는 아름드리나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러한 나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아름드리나무를 그리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산촌유학이라는 아름드리나무가 전국에 숲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박근덕 ((사)생태산촌 정책위원, 평화인권교육센터 부센터장)

청소년 문화학교 느티나무



〈청소년 문화학교 느티나무〉는 넓고 푸른 문화의 즐기와 일새를 드리워 몸과 마음이 무거운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싱그러운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혼자서 꾸는 것이 그냥 꿈이라면 청소년 문화학교 느티나무는 어른, 아이, 청소년, 길라잡이 교사가 느티나무 아래에 함께 어우러져 울긋은 청소년 문화마당 건설이라는 푸른 꿈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충남의 공주의 산골 폐교에서 새싹을 틔운 느티나무 학교는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소외 현상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몸과 마음이 지친 도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학교 느티나무〉는 ‘느티나무 공부방’, ‘농촌문화체험학교’, ‘주말청소년문화학교’, ‘청소년계절학교’, ‘마을교육문화공동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공부방

농어촌 지역의 방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청소년의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마을의 아이들과 방과 후 하

루 2시간씩 영어, 수학, 사회, 한문, 컴퓨터, 문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 체험학교

농어촌에 살면서도 전통을 잃어가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의 힘과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동시에, 이러한 문화를 접하기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학생들에게 농촌문화의 체험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전통음식, 농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청소년문화학교

토요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촌지역 청소년들과 인근 도시지역 아이들에게 농촌체험, 역사탐험, 자연탐구, 과학탐구, 문화예술체험,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계절학교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진행되는 계절학교는 원두막 짓기, 황토집 만들기, 뗏목 만들기, 별자리 관찰 등 테마가 있는 프로젝트형 캠프입니다. 자연을 대상화한 관찰이 아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키워주고,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모듬과 나눔의 장을 통해 ‘마음의 울타리’를 넓히고 ‘생각의 확장’을 도와줍니다.

마을교육문화 공동체

컴퓨터로 한글을 배우는 ‘문해 교육’·풍물교실 등 주민교실, 농사일을 마친 인근 세 개 마을 주민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하는 자리로 마련된 ‘은행나무 축제’, 마을 탁구실과 도서관 운영 등 농촌 지역 주민들과 지역교사, 민단단체가 함께하는 교육문화공동체 활동입니다.

충남교육연구소

(<http://www.chungnamedu.or.kr>, <http://www.neuti.net>)

프로그램

※ 계절별로 시간 및 프로그램 일부 조정

※ 단체 신청 시 단체 활동과 조정 가능

※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당일 프로그램

시간	교육 주제	비고
10:00	공동체 놀이로 마음열기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전래놀이
11:00	농촌의 세시 풍속 엮보기	촌할머니 손맛으로 배우는 전통음식 만들기
12:00	점심식사	마을에서 생산된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밥상
13:00	골짜라 둘러본 촌마을	봉헌농경문화유물관 답사 및 농기구 체험
14:00	농촌의 멋을 찾아서 1	자연재료를 이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15:00	농촌의 멋을 찾아서 2	자연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16:00	마무리	참여자 평가 설문작업

● 당일 프로그램

시간	첫째날	둘째날
08:30		농촌가치탐색 4 - 생태농
9:00		아침식사 및 정리
10:00	마을 및 활동장소(폐교) 안내	농촌가치탐색 5 - 농촌마을 농경문화유물관 답사 등 마을 둘러보기
11:00	모듬 구성 및 숙소 배정	마음모으기 롤링페이퍼 및 평가서 작성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마음열기 - 공동체 활동	집으로!
14:00	농촌가치탐색 1 - 농촌문화 시골 어른신께 배우는 공예	
15:00	농촌가치탐색 2 - 전통음식	
16:00	마을 농산물로 음식 만들기	
17:00	농촌가치탐색 3 - 자연생태 자연의 소리와 빛을 찾아서	
18:00	저녁식사	
19:00	가족별 장기자랑 준비 및 자유시간	
20:00		
21:00	별빛 축제 만들기	
22:00		

참교육학부모회 후원주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돌려주고자 노력해 온
참교육학부모회 24주년 맞이 후원주점을 성향리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를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를 보며 기운을 얻고 연대와 지지를 나누면서
늘 함께하리라는 믿음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으며
더 열심히 교육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회 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6-742601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서울성곽답사 완주하기



광양지회 들꽃모임이 벌써 6회째랍니다.



광주지부 6월 22_23일 광주에서 518 민주항쟁 역사현장에서 영호남학부모가 만났어요.



나주시회 아빠와 함께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어요.



광주지부 많은 관심 속에 하루밥집 잘 마쳤어요.



남부지회 6월 1일 노들뚝밭으로 소풍다녀왔어요.



대구지부 6월 3일 팔공산 역사탐방 다녀왔어요.



동북부지회 6월 11일 꾸러기학교를 시작했어요.



서부지회 6월 15일 고은초등학교에서 전래놀이 활동을 했어요.



울산지부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더불어숲 부모학교 잘 마무리했어요.



의정부지회 청소년기의 갈등과 폭력 예방 학부모 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청소년기의 갈등과 폭력 예방 학부모 상담원 양성교육

청소년 폭력으로 인해 자살, 우울, 학업 중단, 가정파괴, 포식 범죄 이따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어 학교, 학부모,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기의 갈등과 폭력 예방 학부모 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부모 상담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일 시: 2013년 6월 28일~9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시
- 장 소: 의정부시 시민로39 대정프라자1008호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사무실

정읍지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했어요.



지부지회 소모임 - 김해지회 우쿨렐레 모임

내년 총회 때 뵙내보렵니다!

매주 월요일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맑고 경쾌한 우쿨렐레 연주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김해지회 참학회원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있는 우쿨렐레 강좌의 모습입니다.

통기타는 스틸소재 줄을 사용해서 손끝이 많이 아프고 6번 줄까지 있어 손이 작은 여성이나 어린이는 코드 잡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쿨렐레는 부드러운 나일론 소재 줄을 사용해서 손끝이 덜 아프고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평소 악기 하나쯤 배우고 싶다는 회원님들의 욕구로 올해 2월부터 소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자며 5개월의 2급 자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김은순 총무님의 배려로 일터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작은 방을 연습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연습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음악을 통해 회원간 결속력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끼리 배우고 즐기지만 말고 연주를 통해 사회봉사도 해보자며, 지난 4월 27일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사랑이여 가기' 행

사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김해지회 회원님들~ 먼저 내가 치유받고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겠지요.

앞으로 1급 자격취득과정도 도전해서 개인적으로 지도자 활동도 하겠다는 포부도 밝히시고 아직은 서툴지만 올해 가을쯤 정기연주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끝없는 도전이 어디까지 갈지 기대됩니다. 김해지회 우쿨렐레 연주 솜씨 궁금하시죠? 내년 참학 총회때 회원들 솜씨 한번 뵙내보길 기대해 볼까요? 동의하시면 김해지회 카페 방문하셔서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명 (김해지회 사무국장)



음악을 통해 힐링을!

캠핑이나 바닷가에 갔을 때 근사하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쯤은 꿈꿔봤던 모습이라 꼭 배우고 싶었던 기타 연주. 그러나 기타는 나처럼 작은 체격으로 너무 먼 당신이었다.

기타 1/3정도의 작고 앙증맞은 우쿨렐레를 봤을 때, 이건 해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현도 단순하고 통통 튀는 소리가 귀엽고 경쾌했다. 더구나 자격반이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해보기로 했다.

우쿨렐레를 배운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주 용감하게 요양원 봉사로 아이들과 '올챙이와 개구리,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연습해서 무대에 올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 노래 소리에 묻혀 우쿨렐레 소리는 들리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무모함과 용감함이 오히려 도전이 되어 이 후 연습도 착실하게 해서 참교육학부모회 회원들과 장애인 행



사에서 공연도 가졌다.

곧 2급 과정을 마무리 한다. 이어지는 1급 과정도 도전하기로 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소모임 동아리 형태로 시작했지만 우리 회원들끼리 함께 봉사활동도 가고 싶고, 무대에도 서고 싶고, 가능하다면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싶다.

힐링이 필요한 시대다. 음악을 통해 힐링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다른 지회 지부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김은순 (김해지회 소모임 회원)



상담실에서

전학 강요하는 자사고!

☹️ 고인 우리 아들은 자율형사립고에 다니고 있다. 지난 해 남편 사업이 부도나서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학교에 대한 평판이 괜찮았고, 무엇보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을 생각해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학교였다.

그런데 착하고 온순하지만 했던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흡연을 서너 번 해서 적발됐고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었드려 있는 일이 있어 생활지도부교사에게 불려가 각서를 쓰는 일이 있었다. 담임에게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은 없는지 상담하고 싶다고 했으나, 교칙 위반 관련 사항은 생활지도부교사가 전담한다고 하여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위센터를 알아내어 현재 우리 아이는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물론 각서를 쓴 뒤로 흡연은 하지 않고 학교생활도 좋아졌다. 그런데 학교에선 아이가 흡연은 안 하지만 학교생활에 불성실하다며 전학을 강요하고, 전학을 가지 않으면 자퇴시키겠다고 한다.

나는 교육청에 아이가 다닐 학교를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고, 아이가 상담을 받으며 변하고 있으니 상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전학을 유예시켜 달라고 했는데 생활지도교사는 무조건 전학을 가라고 한다.

아이가 잘못을 시인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반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 학교가 너무 비교육적이라고 생각



한다. 사배자로 들어와서 멸시 받는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자율고가 다 이런가?

☹️ 자율형사립고는 엠비 정부 때 학교다양화 프로젝트로 생긴 학교형태로 시행조치부터 고교서열화로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 여론이 드셨습니다. 일반고의 3배나 많은 등록금 등 귀족학교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배자 전형이 도입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니다.

특히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사배자 전형자들의 전출이나 자퇴 등의 중도탈락율이 전체 중도탈락자의 40%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돌보고 지켜봐야 하는 학교가 아이의 잘못만을 내세워 징계하고, 더 나아가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징계나 벌점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지각이 강제전학과 자퇴의 사유가 되는 것은 자율권의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활지도교사에게 그간 아이의 변화와 학교생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학교의 포용력 있는 도움이 절실함을 말씀하시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그렇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물어보셔서 만약 입시경쟁이 일반학교보다 더 치열한 자율형사립고의 분위기 때문이었다면 교육환경을 바꿔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

알 수 있을까?

이들

초등학교 때 몰랐잖아

중학교 때 알거라고

중학교 때 몰랐잖아

고등학교 때 알거라고

그 때는 몰랐잖아

그 때는 알거라고

고등학교 리 보니 모르는 것 특성이

비밀잡아 하더니 모르는 것 특성이

내 인생 왜 이런지 신세한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3주 너무 짧아

그렇게 시간은 가고

무엇 위한 공부인가?

공부해서 대학가면

예배진다 먹거진다 술 배진다

변한 거짓말에 기대어 공부한다

이것도 모르는 것 특성이

공부만 하면 하늘이 별도

달도 태양도 기진다고

모든 것은 기진다고 하늘에

정말일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진짜 이유

알 수 있을까?

배예성(선사고 2학년, 현미미 14기 정상담원 아들)



■ 마중물(16)

어떤 창의성인가?



요즘 교육의 장에서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어휘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교육과 학기술부의 창의인성교육, 경기도 교육청의 창의지성 교육만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창의성은 그것이 쓰이는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개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현실에 미치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창의성 개념은 과거의 활용방식과 그 기능의 차이가 있다. 종래의 창의성 교육은 일제식, 획일식 교육의 대안적 상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창의성은 오늘날 경제적 환경에서, 기업이 정신과 기술

혁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정에서, 창의성이 집단 또는 조직의 전체 이익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개인의 자기 계발 테크닉으로서 창의적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무엇인가가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독창적인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용이하지 않다. 일례로 어떤 독창적인 것이 기술의 혁신 측면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대량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의 파괴, 또는 감시와 통제에 활용된다면 그것을 창의적이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창의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것들조차 여전히 창

의적이라 부르며 살아간다.

창의성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창의성 교육은 민족주의, 공리주의, 엘리트주의 담론에 갇혀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을 받은 인간이 정말 창의적이라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혁신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변화의 전략과 방법을 주체적으로 창안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돈이 있어야 함)과 시민으로서의 존엄성(무시 받지 말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함)을 보장받는 사회이다. 즉, 재분배와 인정 측면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창의성이 절실하다.

성열관 (우리회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인터뷰 : 서울지부 서부지회 송성남 신임지회장 인사

아이를 믿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난 6월 8일 서울지부 서부지회가 탄생했네요. 이번에 지회장을 맡은 송성남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엄마는 직업이 뭐예요?”라고 묻더군요. 저는 직업이 뭘까요?

저는 중1, 초5, 초4, 초2 세 아들과 막내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야단법석, 정신없지만 제가 세상에 나와서 참교육학부모회를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우리집 네 아이들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전 그냥 아이들이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활동은 그것으로 좋습니다.

요즘은 아이들과 학교에서 전래놀이도 하고 텃밭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보고 결혼했느냐고, 아이도 있느냐며 저를 껴안고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노는 것은 분명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노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꺼내 쓰는 저축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 키우기가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믿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더군요. 저도 아이 넷을 키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그렇게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인지요.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참 다양하고 남다른 생각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익숙한 틀에 아이들을 맞추어 가며 그

게 즐거움인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이 기심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참교육학부모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길도, 즐거운 길도, 희망찬 날도 바로 우리 학부모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관심가지고 뭘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즐거움도 희망찬 미래도 그 무엇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만 보시지 말고 우리의 아이들을 봐 주세요.

앞으로도 서부지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 문화 ④ 고양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놀이터 기자단

힘들지만 그만 두고 싶지 않은, 버티다 보면 어느 새 커 있는

내가 기자단을 시작한 건 4학년 때다. 처음에는 낯설고 선배들도 무서워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다 처음 기사를 마감했을 때의 뿌듯함이란! 처음으로 어른 없이 서울에 가보고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를 만나고 책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난다.

나는 혼나는 것이 두려워 안전한 틀 속에서만 기사를 썼다. 그래서 편집장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많았다. 그런데 하도 혼나다보니 이제는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됐다.

우리 책놀이터 신문 기자단은 매월 마지막 주에 기획회의를 한다. 어린이 편집장이 사회를 보는데, 각자 생각해온 내용을 나누고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쓰고 누가 쓸 것인가를 정한다. 3주 동안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쓴다. 마감 날이 되면 다들 얼굴이 어두워진다.

우리 기자단에는 규칙이 있다.

하나, 발로 직접 뛰다. 컴퓨터로 자료를 찾아도 되지만 그보단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생각만으로 기사를 썼다간 마감 날 큰 소리를 듣게 된다. 셋, 마감을 연장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하루

나 이틀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 그랬다간 당장 기자단을 그만둬야 한다. 이상하게 평소에는 그만두고 싶다가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든 붙어있고 싶어진다.

기자단 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어려운 기사는 선배들에게 맡기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기수가 최고 학년이기 때문이다. 힘들지만 해냈을 때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나는 어린이편집장이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기사도 맡아야 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뽑힌 거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한다고 늘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우리가 후배 교육도 시켜야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후배도 있고 한 번 말하면 척 알아듣는 후배도 있지만 최대한 모두 끌어안고 간다. 기자단은 혼자서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까마득할 때도 있지만 여태까지 해온 것이 아까워 그럴 수 없다. 버티다 보니 오기가 생기는 것 같다. 물론 오기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나는 기자단을 졸업하는 게 아쉽다. 기자단이 어



떻게 될까 걱정도 된다. 과연 우리 없이 후배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개네들도 버티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을 것이다.

마감 날이 되면 우리는 또 얼굴이 어두워지겠지? 그러나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뒀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기쁨! 어쩌면 그 긴장감 때문에 기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효정 (원당초등학교 6학년)

자유투고 : 「갈등해결조정자훈련과정」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모두가 이기는 싸움

학기 초가 되면 학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돈다. 아이들은 서먹하게 앉아있고, 교사와 아이들은 서로 탐색하며 눈치작전을 시작한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관계는 점점 삼각형의 서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고학년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물밑 싸움이, 저학년의 다툼이 눈에 띄게 보인다. 한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이마저도 잠잠해진다. 이미 아이들은 힘이 센 아이와 약한 아이를 구분하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는 또 어떤가?

교사는 학기 초에 아이들을 잡지 못하면 일 년이 피곤하니 우위를 점해야 한다. 잘 잡는 교사는 우수한 교사다. 잘 잡지 못하면, 학부모에게도 동료 교사에게도 무능한 교사로 낙인찍힌다. 이렇게 학교는 만남이 시작 되는 그 날부터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간이기보다 서로의 힘을 과시하는 공간이 되고 만다.

학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에 보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항상 걱정이다.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거나 친구들과 다투었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학교에 전화해 물어보고 싶어도 선뜻 할 수가 없다. 설사 이야기 했다고 해도 아이에게 해가 될까 참고, 선생님과 상의해보려고 해도 그 또한 여의치가 않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힘을 키우라고, 맞지 않으려면 네가 더 힘이 세면 된다고, 그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주먹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교사들도 다를 바가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다투는 아이들을 어르고 야단치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선불리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편든다고 학부모들이 서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교실은 난장판이 되 버린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폭력이 없다고 덮으려 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폭력은 수위를 더해가고 학교는 계속 강한 처벌로 해결하려고 한다. 완전히 싹을 뽑겠다고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아이들은 병들어오 말을 잃고, 어른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모두가 갈등을 겪고 있다. 사실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부모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이겨야 하고, 상대방은 져야만 하는 해결 방법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이기지 못하는 싸움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따르면 편하니까 회피한다. 갈등해결조정자과정 첫 시

간에 모인 수강생들이 처음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보면서 또는 겪으면서 무기력했으며, 학교의 무책임한 대처에 실망했다고 하였다. 배워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교사인 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교사들이 무책임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교사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하게 해 주겠다는 희망으로 이곳에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 갈등해결조정자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현명한 갈등해결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갈등해결과정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배우고 실습하였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면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배운 것이다. 갈등해결은 피하는 것도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현명한 갈등해결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이다.

한봉순 (초등교사)

방송모니터(6)

KBS 1TV 시사교양프로- ‘노인, 세상에 말을 걸다’를 보고



매주 일요일 오후, 20분이라는 짧은 방송시간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이다”, “제작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프로가 있다. <노인, 세상에 말을 걸다(KBS1, 4.14~6.16 방송종료)>가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

령의 나이에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역노인’들의 이야기로 연륜, 경험, 의지를 담은 작품이다. 또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관한 해답을 찾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실천적 조언을 들려주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담겨 있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이란 쓸모없고, 돌봐줘야 하는 부담스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일하는 노인’을 보았다는 것이다.

팔순을 바라보지만 “농사는 두 번이 없기에 최선을 다한다”며 50년 넘게 영농일기를 쓰며 농사를 짓는 경주의 농부와 85세의 나이에도 물질을 하는 제주도 해녀 등 각 회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소개되었다. “(일은) 죽어야 끝난다”고 했던 어느 분 말씀처럼 노동은 어르신들의 살아있음의 표현이었다. 그렇기에 이 프로는 노인하

면 떠오르는 이미지, 즉 쓸모없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노인이 세상에 말을 걸 때 세상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이렇듯 삶과 말이 일치했을 때라는 것들이 프로그램은 잘 보여주고 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로 우리나라 산천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덤으로 즐기면서 “휴일 오후에 힐링이 된다”고 했던 시청자의 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몇몇 작품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고 싶다.

첫째, 3회 <우리는 부부입니다>편은 연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다. 60년 넘게 살아온 노부부의 일상을 통해 진정한 부부애를 보여 주려고 했던 작품이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에게 “소가 보고 싶냐, 할머니가 보고 싶냐”는 질문을 던진다는지, “영감 덕에 허전한 집에 온기가 퍼진다” 식으로 두 분 말씀이나 행동으로 전해지기 보다는 내레이션으로 주입되는 부부애는 덤덤한 노부부의 사랑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점이 아쉽다. 시청자가 궁금한 것은 긴 결혼생활 중에 벌어졌을 갈등과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냐는 것인데 “그저 부부는 하나가 되어 살아야한다”는 당위만이 강조되는 느낌이었다.

둘째, 6회 <내 고향 분점도>에 등장하신 80세 어

르신 모습에서는 부정적인 노인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서해안 분점도에서 30여 년 생활했지만 제복처럼 분점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나 깨나 황해도 고향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노인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어두운 인상을 받게 되었다.

셋째, 7회 <두 엄마의 동행>편은 101세 시어머니를 모시는 78세 며느리 모습을 통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순종하는 며느리로 표현한 점이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가난한 살림에 “불평 한 마디 없이~”식의 뻔한 멘트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텨온 어머니들 모습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표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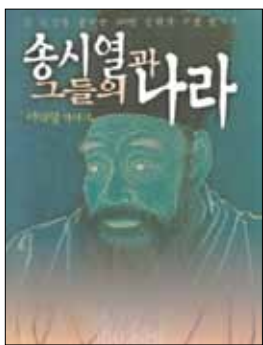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총 10회에 이르는 방송 내용은 모두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로 ‘노인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는 고정 관념을 주는데 이런 틀을 깨고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도 아쉽다.

어느 출연자의 아드님의 얘기처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어머니(부모)”가 우리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있다. 가난과 역사의 질곡을 겪은 그 분들의 이야기야말로 요즘 만들어내지 못해서 안달인 스토리며 콘텐츠 아니겠는가? 앞으로 보여주는 노인은 ‘탐구할 값어치가 있는 인생’, ‘보물 창고’로서의 역할로 방송에서 계속 재조명해주길 기대해본다.

육연희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회원)

책소개

‘동양고전 읽기 전에 꼭 한번 읽어야 할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출판
이덕일 지음

언제는 위기라던 인문학이 이제 열풍이라나다. 여기저기서 동양고전, 서양고전들을 공부하는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고전들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동양고전이다. 요즘 인문학 모임들에서 많이 읽고 있는 동양고전하면 대부분 중국고전이다. 중국고전하면 또 대부분 소학, 논어, 중용, 대학, 맹자 등의 유학 해석서들이다. 고전은 해석이 생명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중국고전 해석서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되어 있다.

최근에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고전들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해석서들도 많이 눈에 띈다. 그래서 동양고전을 고를 때는 해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학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수화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틀어 놓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양고전 해석서들을 읽기 전에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를 한번 읽어보기를 권 하고 싶다.

‘우암 송시열’하면 우선 그가 주장했다는 북벌론이 떠오르

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 당파와 당쟁이 떠오른다. 송대의 주자에 의해 주창된 ‘신유학’이라는 방대한 형이상학을 예학, 신분 질서, 그리고 남녀차별의 규범학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회질서로 정착시키는 역사의 중심에 송시열이 있다.

예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각 신분에 따르는 분수와 예절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농민은 결코 지배계급인 사대부에게 저항할 수 없다. 사대부는 영원한 지배계급이고 농민은 영원한 피지배계급인 것이다.

그리고 예학은 가부장제 가족문화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 힘이 있는 어른이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힘 있는 남성이 힘 없는 여성들에게 군림하고 신분에 따르는 약자들 이외에도 아이들, 여성 등의 약자들을 옹아매는 데도 단단히 한몫을 해왔다.

그런데 아주 대중적으로 써졌으면서도 논지가 분명한 이 책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 개괄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다. 그리고 덤으로, 아니 모든 역사 해석이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역사에 대한 조망과 조명을 비춰준다.

곽경숙 (울산지부 인문학 독서모임)

사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체제 개편 논의해야한다

위기로 거론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실상은 이미 예견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예술, 체육, 과학, 외국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내건 특수목적고 120개교 63,120명(2011년 기준)에 이른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자율화의 명분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새로운 학교 유형을 만들어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서열화 현상을 매우 극심해졌고 성적우수 학생을 독식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입시명문고와 다름없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학교 유형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대입에 유리한 학교가 되어버렸다.

학생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교육정책이어야 한다. 흔히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해야 한다는 수월성 교육은 지금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삼류학교로 전락시켜 특목고와 자사고의 들러리가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좌우되는 학교가 등장하고 이들 학교가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면 부모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런 현상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정책 방향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타난 문제가 정책의 방향과 배치된다면 정책은 수정되는 것이 맞다. 오늘도 아이들은 짓눌린 표정으로,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활기를 잃은 얼굴로 학교에 간다. 현행 고교 체제는 너무 복잡하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학생들이 원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국가 교육정책을 몰고 간다면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소리를 곧이듣겠는가.

현재 고등학교 유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의해 수시로 학교 유형을 만들었다고 한다. 정권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학교 유형을 만들어 고등학교 체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 백년지대계 운운하며 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이렇게 쉽게 학교유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내걸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하는 헌법 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고교체제를 먼저 손보아야 할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989년 9월 22일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학부모들이 창립한 교육운동 단체로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 어린이·청소년체험활동·교사·자녀와 소통훈련·부모역할훈련
- ★ 교육과정 안내 등 새내기 학부모교실 운영·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지원
- ★ 학부모의 눈으로 교육정책 개발과 연구
- ★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실운영
 - 자녀인성과 진로·전입학 등 자녀교육 상담
 - 인권·체벌·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와 안전공제회 보상문제 상담
 - 학교·교사 문제·불법찬조금·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관련 상담
 - 학교폭력문제 갈등조정자 훈련 등 전문상담원 양성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은 자녀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단체의 전문성을 갖춘 국내 유일한 학부모를 위한 상담실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 되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회 활동에 동의하는 일반인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회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며 여러분의 회비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출금(CMS) 이용하기

- 홈페이지(www.hakbumo.or.kr)방문. '후원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로 전화(02-393-8900)주시거나 출금 약정서에 기입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신한은행 100-014-533161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393-8900
학부모상담실 전화 상담
02-393-8980
사이버상담
<http://www.hakbumo.or.kr/학부모상담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박범이 창간일 1991년 5월 1일
기획위원 고경환 김은영 김정인 송환웅
이육주 정 방 조혜옥 최주영
주 소 (우)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7-14 2층
전 화 02-393-8900 전 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amhak
트위터 @chamhak 디자인제작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부회장 박이선 송환웅 최선미
감사 김석순 유지숙 임명희 학부모상담실장 고유경
정책위원장 박이선 조직위원장 최양희 사무처장 이정숙
상근자 김은영 조혜옥 한보수

서울지부	010-8733-0207	지부장 강혜수
	남부지회 021588-8980	지회장 김해수
	동북부지회 021902-9246	지회장 나명주
	서부지회 010-8913-6833	지회장 송성남
경기지부	031)864-3958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김양완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이정숙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이민애
	수원지회 010-2896-8400	지회장 안용정
	안양지회 010-4216-0893	지회장 김민영
	양주지회	지회장
	용인지회 010-6259-7499	지회장 임유진
	의왕지회 010-4222-3148	지회장 박향숙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장윤영
	거창지회 010-3867-6607	지회장 유수상
	김해지회 010-5040-3296	지회장 성명자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진인애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경북지부	010-4511-9143	지부장 신현자
	경주지회 010-6266-8796	지회장 신경진
	구미지회	지회장
	상주지회 010-2276-2838	지회장 김미경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칠곡지회 010-4941-4456	최순필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전금순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이경자
	광양지회 010-8617-8201	지회장 박치현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최정희
	목포지회 061)284-6574	지회장 김승진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화순지회 010-2619-9136	지회장 문은아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충남지부	010-5420-3979	지부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천안지회 041)548-6674	지회장 신선정
	홍성지회 010-2614-2208	지회장 김순희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임진희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오미경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곡선희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종
준비위원회	아산 010-7688-4660	위원장 김경숙
	전주 063-287-6070	사무국장 장아름

자문위원회 ●이규환(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수)/강영숙(배재대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영귀(변호사)/강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권정혜(놀이 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교수)/김명신(서울시 의원)/김민남(전 경북대 교수)/김영심(서울시교육청 장학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 국회의원)/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성열관(경희대학교)/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임교사)/송병춘(변호사)/송순재(강신대교수)/안성문(제일합동법률사무소)/이광철(민변사무처장)/이윤미(홍익대학교)/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학교)/전양숙(서울심리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최문순(강원도지사)/최현선(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어린이도서관 꿈꾸는교실 관장)

참교육학부모회 2013년 전국 여름인수 휴리!!



- 일 시 : 2013년 8월 24일(토) 오후2시 ~ 25일(일) 오후 12시
- 장 소 : 거제유스호스텔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246-8 / 055-632-9423)
- 참가비 : 어른 30,000원/어린이 20,000원(1박 3식)

● 프로그램

첫째날 8월 24일, 토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어린이/청소년
14:00~14:30	참가 접수 및 숙소 배정	
14:30~18:00	숙소 - 바닷가 이동 지부별 대항 체육대회(명사해수욕장) 바닷가 - 숙소이동 및 씻기	
19:00~22:00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갈등해결 조정 훈련	강사 특강 참가자 역할 훈련 학부모상담실 시연
22:00~24:00	어울림 마당(강당)	어린이 프로그램 별도 진행
24:00~	취 침	

둘째날 8월 25일, 일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7:00~08:00	기상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편백나무 숲 걷기 및 보물찾기와 사진 콘테스트 (유스호스텔주변 편백나무 숲) 1박 2일을 돌아보며(연수평가 및 시상)
11:00~11:30	짐정리
11:30~	점심식사 및 귀가(자유일정)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 사회는 일순 학교폭력이라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학교 현장을 들쭉했다.
그로부터 1년 반,
과연 학교에서 폭력은 사라졌는가?
그 때를 찍은 한바탕 소란은 무엇을 드러냈고,
무엇을 감추었는가,
학교폭력 정국, 그 이후의 폐허를 응시하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자살한 초
등학생이 있었다. 성적 압박에 지친 나머지 그
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대
구의 한 중학생은 동료들로부터 달한 끔찍한
고통을 체감하게 되었고 가족들에 대한 사
발을 고백한 뒤, '이제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
기고 하공에 몸을 던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학교에서도 1-2등을 다투던
고등학생이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고 있다"는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 행렬은 인류사
의 그 어떤 사회, 그 어떤 문화에

간주어도 어마어마
한 사건이다. 아이
들이 지금 죽음으
로써 이 세계를 이
시대의 생존 방식
을 격렬하게 들이
받고 있다.

— 이재철,
《학교, 폭력의
숙주》 가운데



하공주 · 조영선 · 이재철 · 안기호 외 / 15,000원

현장 교사들이
증언하는
학교의 아픈 자화상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학
교
의
배
반



당신은 알고 있나요?
교육을 위한 공간이고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모두가 믿고 또 기대하는 학교가
교육을 배반하고 있음을.

조혜수 외 13인 / 12,000원

가능성 없는 일을 억권 속에서 정교사를 꿈꾸는 기간제 교사, 무조건적인 필복에 순박화하는 교사, 일제교사
를 거부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 정당 후원금 때문에 빚쟁이 된 교사, 교사의 꿈을 이룬 지 불과 일흔 만에
교육현장에 대한 좌절감으로 생을 끊어 낸 교사.....

학교 안에서 때론 공범자로, 때론 내부고발자로, 때론 '타른 선택'을 하는 아물물로 살아가는 17명의 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비추어준 교육을 증언한다. 이들은 오늘날 학교가 열성과 성실을 다해 만들어 내고 있는 경
쟁과 효율의 구조, 죽자고 해 내야 하는 성과 중심적 교육을 향해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서울시 마포구 성선동 254-10 2층 | 전화 02-332-0712, 070-4084-0712 | 팩스 0505-115-0712

버